

20 장. 예수 안에서 만난 하나님은 누구인가?

A. 주제 (Thesis)

- 우리가 21 세기를 사는 크리스천이라면 유신론적 하느님 개념을 제거하고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하고, 예수의 생애를 포장한 유신론적 하느님을 벗겨내고도 크리스천일 수 있어야 한다, 왜냐하면 예수를 포장했던 유신론적 언어가 이제는 상관성이 없는 언어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. (pg. 320-321)

B. 문제점 (Problems)

- 유신론은 하느님의 실재가 아니다. 유신론은 하느님의 실재에 대해 인간이 만든 정의에 불과하다. 유신론적 신관은 애당초 인간의 자의식에서 온 불안감에 대처하기 위해 창조되었다. 그러나 유신론은 인간들이 하느님을 개념화하는 기본 방식이었기 때문에 1 세기에 한 무리의 집단이 예수 이야기 안에서 하느님을 만났다고 확신했을 때, 그들이 유신론을 예수의 본질로 인식한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. 따라서 우리가 제기하는 예수에 관한 질문은 새롭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. (pg.319-320)

C. 논점 (Argumentation)

- 하느님에 대한 유신론적 정의는 하느님에 관한 것이 아님 → 인간의 의미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생존 가능하게 할 체계를 필사적으로 요구하는 인간에 관한 것 → 하느님은 죽지 않고도 유신론은 죽을 수 있다. (pg. 308)
- 지구 역사의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여정을 제시
 - 빅뱅 → 단세포 → 다세포 유기체 (무감각 혹은 극히 초보적인 감각만을 지님) → 파충류 ("flight-or-fight response" /but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미래와 연결된 불안감은 아직 없었음) → 포유류 (생존경쟁과 지배를 위한 갈등 → 원숭이 집단 (새로운 지능의 잠재력: 지배자로 등장) / 애국심: 종의 생존이 개체의 생존보다 더 높은 가치로 부각)
 - 인간과 흡사한 존재들의 등장 (5-10 만 년 전 어느 때)
 - 의식이 자의식으로 인식이 자아-인식으로 성장한 것
 - 의식적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그것을 회고하며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을 위해 계획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확대된 것

- iii. 물체와 행동에 대해 같은 음성을 내기 시작하여 언어를 발전시킴 (언어는 추상적 사고의 핵심)
- 3. 의식의 중심인 인간은 자기들이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소멸될 것을 자각 → 인생의 의미와 무의미의 문제를 제기하게 됨
 - a. 의미를 찾기 위한 수고와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이 인간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짐 → 모든 생물의 운명은 결국 패배 → 인간만이 그것을 자의식적으로 인식
 - b. 고대 선조들이 최초로 이런 인식에서 비롯되는 불안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자의식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. (자의식을 지탱하는 데는 인간이 대처할 수 있었던 coping mechanism 이상의 것이 필요했기 때문) → 이 순간에 인간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 → 유신론적으로 이해된 하느님 개념
 - i. 유신론은 하나님이다
 - ii. 인간이 대처하는 coping mechanism
- 4. 물활론 (Animism) → 영들이 살아있는 모든 것에 생명력을 준다는 가장 원시적 종교의 내용
 - a. 종교적 과제: 이 영들을 화나게 만들지 않고 그들을 즐겁게 만들어, 그들이 우리의 욕구를 위해 봉사하도록 만드는 것
 - b. 우리의 삶 바깥에 존재하며 초자연적 힘을 지닌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출생한 것
- 5. 유신론 (Theism) → 생명이 진화하고 발전하면서 유신론도 그러했지만 원래의 정의를 넘어서지는 못함
 - a. 농경생활: 지모신 → 여성성, 영들의 가족 (gods), 하나의 최고신이 하급 영들을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
 - b. 가부장제가 여성성을 몰아내고 다신론의 세계에서 유일신의 형태로 바뀜
- 6. 유신론적으로 정의된 하느님: “초자연적 능력을 갖고 있으며, 이 세계 밖에 거주하며,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세계에 개입하여 축복을 주거나 징벌하고 신적인 의지를 성취하며 기도에 응답하고 연약하고 무력한 인간을 돕기 위해 오는 존재”
 - a. 유신론적 신관이 정립되자 불안은 곧 감소 (왜냐하면 불안 때문에 이 신을 창조)
 - b. 이 신을 즐겁게 할 방법을 찾는 것뿐 → 종교적 인간
 - i. 하느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예배 방식
 - ii. 하느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행동/삶의 적절한 방법

7. 그러나 여전히 불안은 계속될 수 밖에 없음 (어떤 신적인 계시에 의해 궁극적 진리를 소유한다는 주장이 인정될 때 까지는)
 - a. 절대적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주장/상대성을 억제 → 불안을 억제
 - b.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전능자 하느님의 개념 등장
8. 인간의 종교제도들은 본래 진리를 탐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일관되게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었다는 사실
9. 예수를 포장했던 유신론적 언어
 - a. Ex) 성육신, 삼위일체, 동정녀 탄생, 영생
10. 유신론은 하느님의 실재가 아니다. 유신론은 하느님의 실재에 대한 인간이 만든 정의에 불과하다.

D. 평가 (Critique)

- 이 Chapter 를 진화 (Evolution)의 관점으로 풀어나간 것이 흥미로웠다. Evolutionary Psychology 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다.

E. 생각해 보기

- 내가 예수를 통해 만난 하느님은 얼마만큼 유신론적 하느님의 이해에서 벗어나 있는가?
-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포장했던 유신론적 언어를 오늘날 우리시대에 맞게 재표현해 낼 수 있을까? (동시대성, relevance, universal, etc..)